

VIETNAM



Tháng 3

목차

1.
호치민 팀
일정 소개

2.
활동 내용
- 베트남어 수업
- 스마일푸드
 무료급식 봉사활동
- 시티 투어
- 피크닉
- 기타
- Bonus

3.
되돌아
보기



일정 소개

일	월	화	수	목	금	토
 vietnam	<h1>3월</h1>	1 출국 전 캠프	2	3	4 OT 환영 파티	5 Free & Easy
6 Hochiminh City Discovery	7 베트남어 수업 	8 베트남어 수업	9 	10 베트남어 수업	11 베트남어 수업 	12 Shopping Day
13 Picnic With 스마일 푸드	14 베트남어 수업	15 베트남어 수업	16 스마일 푸드 무료 급식 봉사활동	17 베트남어 수업	18 베트남어 중간고사	19 Earth Hour
20 아오자이 만든 날	21 베트남어 수업	22 베트남어 수업	23	24 베트남어 수업 	25 베트남어 수업	26 Free & Easy
27 Free & Easy	28 베트남어 수업 & Cultural Night	29 베트남어 수업 	30	31 베트남어 수업 & 대학로 탐방		



활동 내용

1. 베트남어 수업



1. 베트남어 수업



1. 베트남어 수업

오전 수업 08:30 ~ 11:00 / 오후 수업 14:00 ~ 16:00

총 7명의 자원봉사자 대학생들이 돌아가며 매일 YMCA에 방문하여 우리에게 언어 교육을 해 준다.

교육뿐만이 아니라 정말 우리와 친구가 되어 함께 봉사활동을 나가기도 하고 주말에는 시간을 맞추어 그 친구의 동네를 방문하기도하고 같이 놀러 가기도 하는 소중한 인연들이 되었다.

처음엔 언어가 확 늘어나는 것이 느껴져 기뻐했지만 이미 많은 것을 배우고 난 후라 요즘은 언어의 습득이 더디게만 느껴져 답답하다.

또한 수업과 별개로 우리 자발적으로 매일 단어시험을 실시하여 열심히 학습 중!

2. 스마일 푸드 무료급식 봉사



2. 스마일 푸드 무료급식 봉사



2. 스마일 푸드 무료급식 봉사



2. 스마일 푸드 무료급식 봉사



2. 스마일 푸드 무료급식 봉사

매주 수요일마다 가는 곳으로 호치민 시내 중심에 위치한 레스토랑이다. 매우 저렴한 가격인 2000VND(한화 100원)에 한끼의 식사를 제공하는 곳으로 형편이 어려운 남녀노소가 모두 방문하는 곳이다.

작은 규모로 운영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찾아오는 곳이었고 그러한 많은 인원을 모두 봉사자들이 수용하고 있었다. 우리는 그 곳에서 음식을 나눠주고 밥이 부족하면 더 가져다 주고 식사한 그릇을 뒷정리하며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역할을 분담하여 하고 있고 매우 정신없이 활동을 하다보면 어느새 끝날 시간이 되곤한다. 그 곳의 모든 봉사자들이 너무나 애정이 넘쳐갈 때마다 사랑을 듬뿍 받는 기분이 든다.

3. 시티 투어



3. 시티 투어



3. 시티 투어

호치민 노트담 성당 → 호치민 우체국 → 센트럴 파크
→ 벤틀 시장 → 야시장

처음으로 맞이한 주말을 이용하여 호치민 시내를 돌아다녔다. 유명한 관광지도 둘러보고 잔디 주변에 앉아 길거리 음식도 먹어보며 우리의 코디네이터인 Hanh와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함께 해 나가야 할지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다같이 고민하며 남은 기간들을 그려볼 수 있었다.

4. 피크닉 with 스마일 푸드



4. 피크닉 with 스마일 푸드



4. 피크닉 with 스마일 푸드



4. 피크닉 with 스마일 푸드

매주 수요일 방문하는 스마일 레스토랑에서
봉사자들과 함께 떠나는 피크닉에 초대받았다.

멋진 환경과 맛있는 음식, 시원한 물놀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한낮의 무더위를 잊을 수 있었던
즐거운 시간이었다.

처음 본 우리를 선뜻 초대해주신 스마일 레스토랑 관계자
분들께 정말 감사하였고 앞으로도 활동을 열심히 해야지
다짐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5. 쇼핑데이



ITEM : 40,000x003
TOTAL: 1,070,100

5. 쇼핑데이



5. 쇼핑데이

현지 직원분들의 배려로 롯데마트 방문하였고
한국 라면과 떡볶이 소스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을
구매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그 결과 1,070,900동이라는 엄청난 금액을 마주하였지만
다 함께 떡볶이도 해먹고 라면도 끓여먹으며 오랜만에
한국을 느낄 수 있었다.



5. Earth Hour



20:30
19.03.2016
↓

— —
⌋ ⌋
1 ab 2 abc def 3
4 ghi 5 jkl mno 6
7 pqrs 8 tuv wxyz 9
* @ + 0 ⌋ ㊦ #

5. Earth Hour

3월 19일 Earth hour을 맞이하여
전세계 지구시민이 함께하는 Earth Hour에 참여하였다.

초를 켜놓고 평소엔 못했던 진솔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또한 우리가 이 곳에서의 시간을 돌이켜보며

1. 신포(과일 스무디)를 일회용 컵에 받아 마신 것
 2. 장을 보고 난 후 비닐봉지를 받은 것
 3. 잔반을 자꾸 남기는 것
- 세가지를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았다.

5. Cultural Night



5. Cultural Night



5. Cultural Night

워크캠프를 마치고 온 홍콩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행사에 현지의 권유로 함께 참여하였다.

안산에서 효은선생님께 배운 My number와 필리핀팀의 서현식단원이 알려준 춤 동작을 섞어 춤을 추었고 좋지 못한 실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열렬한 반응을 보여주어 공연 후에는 춤을 알려주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었다.

우리가 워크캠프에 참여한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행사를 함께 하고 또 새로운 친구가 생기어 너무나 기뻐다.

Bonus. 우리가 먹는 것들



Bonus. 우리가 먹는 것들

YMCA 1층 식당에서 항상 맛있는 요리를 해주시는
Hwa이모 덕분에 토실토실했던 돼지 다섯 마리들.

이모님의 요리는 정말 진심으로 너무 맛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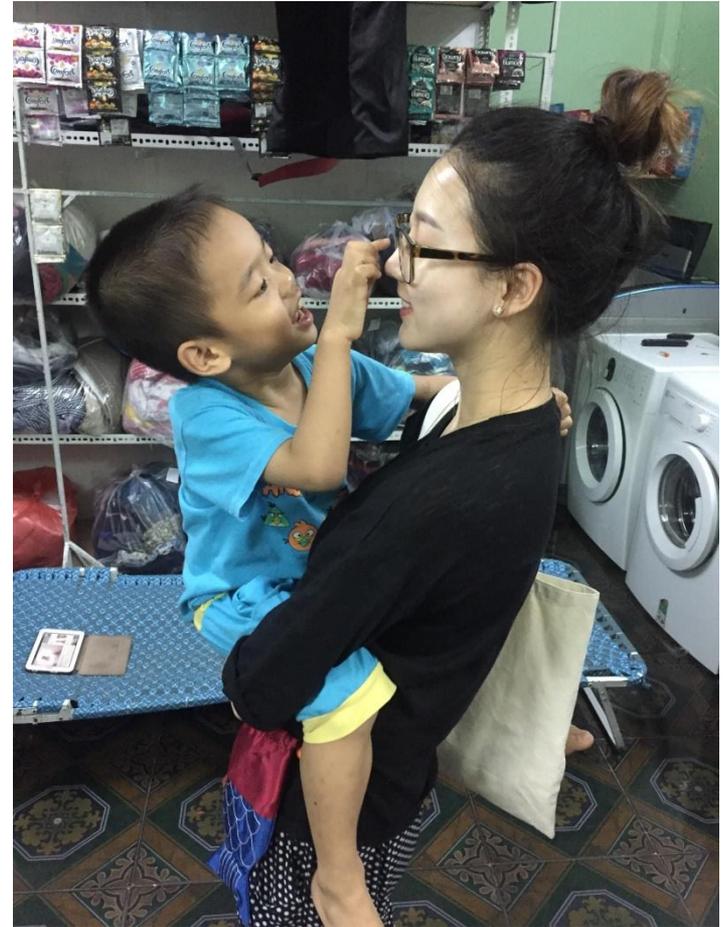
하지만 손이 큰 이모님 덕분에 잔반이 남을 때가 있어
음식의 양을 조금 줄여달라고 요청하였고 최대한 잔반을
남기지 않도록 노력하고있다.

귀여우신 이모의 유행어 “이거 먹으면 예뻐져 다 먹어~”

Bonus. 우리의 일상생활



Bonus. 우리의 일상생활



Bonus. 우리의 일상생활

저녁엔 시원한 강바람을 쐬러 나가기도 하고

주로 저녁에 마을 주민들이 운동을 하거나 바람을 쐬러 많이 나오시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러 나가기도 한다.

처음에는 신기한 눈빛, 낯선 눈빛으로 보던 주민분들께서 이제는 우리가 하는 인사에 웃으며 대답해주시고 아기들도 도망가거나 숨지 않고 인사를 해 주어 너무나 기쁘다.

특히 우리에게 베트남어를 알려주겠다며 매일 저녁 7시에 공터에서 만나 대화를 나눠주시는 다음달에 결혼을 하실 친절한 앞집 언니가 너무나 감사하다.

Bonus. 우리의 일상생활



Bonus. 우리의 일상생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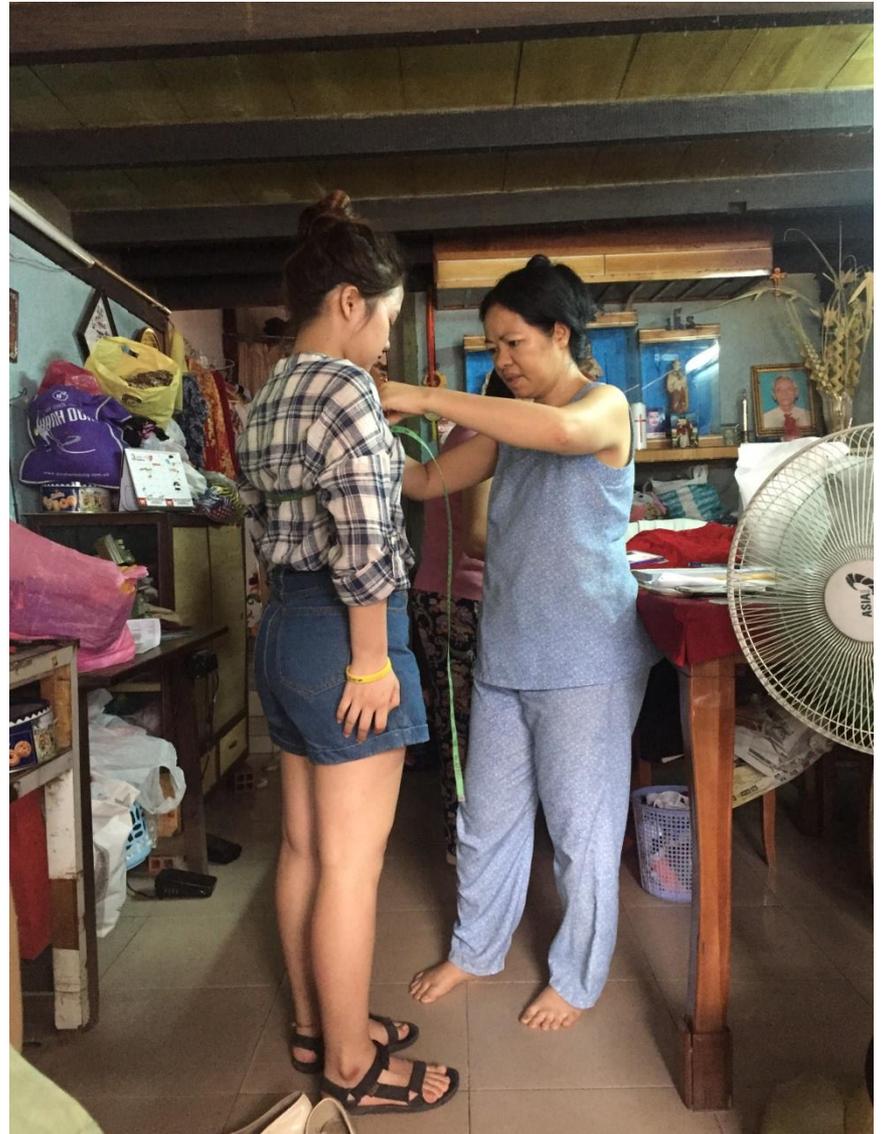
현지에서 파는 사탕수수 음료와 생과일 주스, 스무디는 너무나 저렴한 가격에 훌륭한 맛을 자랑한다.

덕분에 매일 저녁 뭘 마실지 고민하는
즐거운 다섯 돼지들

하지만 한 가게만 이용할 수 없는 우리의 불편한 마음.
동네의 상인분들께서 자신들의 것이 더욱 맛있다고 먹어
보라고 많이 권유하셔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한 가게를 이
용할 때 다른 가게의 눈치가 많이 보인다.

그래도 매일 반갑게 인사해주셔서 너무나 행복하다!

Bonus. 우리의 일상생활



Bonus. 우리의 일상생활



Bonus. 우리의 일상생활

베트남의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만들고 싶다 하니
현지 직원분들의 도움으로 직접 천도 고르고
우리의 신체 치수에 맞는 맞춤 아오자이를 제작하였다.

제작에는 열흘 정도가 걸렸고
총 비용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저렴하였다.

현지 직원들 또한 우리가 아오자이에 관심을 가지고 좋아
하는 모습을 보고 더욱 좋아해주셔서 베트남의 문화에 대
해 더욱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겠다 생각하였다.

Bonus. 우리의 일상생활



Bonus. 우리의 일상생활

봉사자인 Vy와 Thanh의 제안으로 대학로를 방문했다.
주변에 대학교가 많이 밀집되어있어 굉장히 다양한
음식들과 물건들을 판매하고 있었다.

특히 음식은 로컬보다도 저렴한 가격으로 먹을 수 있었고
심지어 맛까지 매우 좋아 정말 행복하였다.
그 외에도 옷, 액세서리, 신발 등 많은 것들을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어 좋은 곳이었다.

또한 대학생 포래들이 많아 그곳에서 새로운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을 것 같아 매우 기대가 된다.



되돌아 보기



Minh

#욕심 #조급함 #답답함 #받아들이기 #수용 #조금씩 재미

3월 한 달을 돌이켜보면 마냥 좋았다고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첫 한 달은 주로 낯선 환경 속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 관계를 형성하고 현지 언어를 배우는 나날들이었다. 그 속에서 개인적으로 항상 목적과 의미를 찾고, 뭐든지 잘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지만, 그런 생각과는 달리 정작 눈에 보이는 뚜렷한 성과가 없어 답답한 마음이 들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당장의 결과만을 좇기 보다는 조금 더 길게 생각하고 한걸음씩 나가자는 자세로 임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한 자세라고 여기고 다음 달에도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Mai

벌써 한 달이라는 시간을 베트남에서 생활 했다는게 믿기지 않는다. 항상 우리에게 맛있는 밥을 해주시는 화 이모, 매주 우리를 위해 자신들의 귀한 시간을 써가며 Y를 방문해주는 봉사자들, 우리가 뭘 해도 좋아해주시는 Y식구들 그리고 우리가 지나갈 때마다 항상 반갑게 인사해주시는 마을 주민들 덕분에 시간가는 줄 모르고 행복하게 지냈다. 관계의 시작은 나로부터라는 말이 있듯이 더 많이 다가가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 중이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이곳에서 겪는 소소한 모든 일이 새롭고 재미있다.

국제자원활동, 라온아피라는 이름으로 이곳에 왔지만 아직까지 이곳에서의 한 달은 그 뜻을 헤아리기 어려웠던 것 같다. 하지만 이곳에서 느끼는 순간순간의 감정들과 관계들이 너무 소중하고 좋기 때문에 걱정 없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는 중이다.



Chi

벌써 5개월 중 한 달이 지났다.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고 지낸 시간이었던 것 같다. 이곳에 있으면서 내가 한국에서 얼마나 무의미하게 일상들을 보냈는지 알 수 있었고 지금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 내가 때론 뿌듯하기도 했다. 남은 4개월도 부지런히 살 수 있겠지.. 이곳에 있으면 모든 순간이 너무나 감사하다. 특히 항상 우리를 먼저 생각해주고 가족처럼 살뜰히 챙겨주시는 베트남Y 직원 들께 그리고 봉사자 친구들에게 한달 만에 정말 큰 애정을 느낀다. 그리고 매일 지나다닐 때 웃으며 인사해주는 마을 주민들, 상인들 까지 모두다 한달 새 많이 친해졌음을 느낄 수 있다. 때론 과분한 애정과 관심에 내가 뭐라고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실까 하는 마음이 들어 죄송하기도하지만 그만큼 노력하는 것으로 보답하려 한다. 세상은 참 넓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또 한번 느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인생을 사는 지 참 궁금하다. 4월은 더 주변에 관심을 가지고 애정으로 다가가는 내가 되도록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우리 호치민팀 thang này tốt lắm♥ thang sâu có len♥



Linh

벌써 한 달이 지났다니 믿겨지지 않는다. 생각보다 너무 잘 지냈던 한 달이었다. 조금씩 조금씩 스며들 듯이 이곳 베트남 YMCA에 적응해가고 있는 중이다. 오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말도 잘 통하지 않는 베트남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이해할 수 있을지 고민했었는데 결국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고 이야기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냥, 여기 있는,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다. 아기처럼 말하는 우리들을 늘 기다려주시고 먼저 생각해주는 YMCA 가족들, 정말 친구같고 언니같은 코디네이터 한, 늘 밝게 우리를 대해주시는 스마일 레스토랑 친구들, 이모들, 삼촌들. 우리에게 베트남어를 가르쳐주는 봉사자들.. 수요일을 제외하고는 매일매일이 베트남어 수업만 진행되어서 지루하고, 답답할 수도 있는 일정이었음에도 이 분들이 계셔서 즐겁게, 또 무사하게 한 달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언제나 의지가 되는 팀원들이 있었기에 하루하루가 즐거울 수 있었다. 앞으로 우리와 만날 사람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활동들이 기대된다!! Linh vui qua~



Dong

베트남에 도착해서 지금까지는 현지 적응과 앞으로 활동에 있어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치는 베트남어 수업에 집중적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활동을 진행했다.

돌아보면 한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갔다. 출국 전에 5개월이란 시간을 생각하면 꽤나 길게 느껴졌었는데 한 달이 지나간 지금에서는 5개월이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는 느낌이 든다.

이번 한 달은 국내 교육 때 지겹게 들었던 도움을 주는 또 도움을 받는 입장의 경계가 허물어지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한 달이었다.

우리를 위해서 많은 베트남 ymca 직원들이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주며 많은 부분을 신경 써주고 챙겨주는 모습을 볼 때면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걸까?', '정말 나는 이 자리에서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떠오르기도 했다. 하지만 복잡한 생각은 잊어버리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내가 즐거우면 되겠다는 생각으로 스스로 위로하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기도 했다.



Dong

한 달 동안 가장 강하게 느꼈던 생각이라고 한다면 특히 감사함을 느꼈던 한 달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삶의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을 때 나에게 새로운 길을 보는 눈과 기회를 준 국민은행과 YMCA 그리고 나이를 떠나서 배울 점이 많은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해져버린 형민형, 예지, 유정, 현경이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다. 모든 부분들이 완벽히 맞을 수는 없지만 서로에게 양보해가며 서로를 위하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에 반성하고 또 감사했던 순간이 많았다.

5개월의 활동을 통해 내가 무엇인가 심적으로 크게 깨닫거나 얻는 것이 없을 수도 있지만 내 평생에 좋은 사람 4명과 15기 전체 팀원들을 얻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지금의 상황이 자신의 생각과 달라 힘이 들 수도, 회의감이 들 수도 있지만 15기 모두 힘내고 하루하루 나 자신이 즐거운 길에서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며...!! 3월의 보고서 끄읏!



Xin Cám Ơn